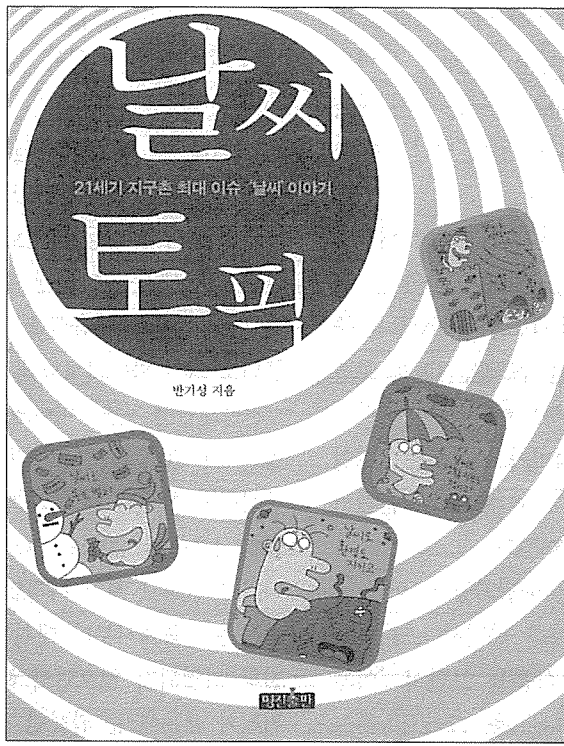


날씨에 얽힌 이야기 흥미롭게 담아

□ 날씨토픽 / 반기성 지음, 명진출판 발행



날씨와 우리 일상생활의 관계를 흥미롭고 다양하게 담은 새 책 「날씨토픽」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날씨 덕에 조조의 80만 대군을 무찔렀고 캐나다판 봉이 김선달은 북극의 얼음을 펴야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비오는 날 출산율이 높은 까닭 등을 재미있게 엮었다. 군인인 저자 반기성중령은 “날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인이나 국가가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인 반기성중령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날씨를 알고 이해하였으면 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비, 우박, 눈, 엘니뇨, 태풍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기상현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다음날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좌우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기상정보는 이제 일상사의 중요한 일정을 잡는 것에서부터 기업의 홍보, 마케팅, 여기에 국가간의 전쟁전략까지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또 더욱 활용되어야만 하는 분야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날씨와 건강의 상관관계에서부터 최근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날씨와 마케팅, 날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거나 주요 전략으로 이용된 역사 속 이야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등 흥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날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날씨를 알아야 전쟁서도 승리

또 기후 변화는 지구의 환경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어 놓기까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날씨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우리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저자가 군인이라 책 내용도 딱딱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사를 뒤바꾼 날씨' 편에서는 전쟁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흥미롭고 재미있기만 하다.

한 예로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맞은 오나라는 제갈공명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한다. 비결은 날씨였다. 제갈공명은 어부들을 통해 '적벽에서는 동지(冬至)를 전후해 미꾸라지가 뱃가죽을 보일 때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한 화공계(火攻計)로 조조의 80만 대군을 무찔렀던 것이다.

또 날씨는 징기스칸의 백전백승 전략이기도 했다. 그는 비가 슬금슬금 올 때만 철갑으로 무장한 동유럽 병사에게 싸움을 걸었다. 비가 그쳐 동유럽 군사들이 갑옷과 투구를 벗어 말릴 때 징기스칸은 기동력 있는 기마병을 출동시켜 적의 목을 추풍낙엽처럼 베었다는 등 비, 바람, 안개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고대전쟁에서부터 월남전,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있다.

비오는날 출산율이 높은 까닭은...

'날씨를 알면 돈이 보인다'는 2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날씨보험에서부터 다양한 날씨 마케팅 이야기, 북극의 얼음을 팔아 백만장자가 된 캐나다판 붕이 김선달 이야기, 패러다임을 바꾸어 돈을 벌었다는 생산적인 이벤트로 바뀐 약천후 이야기 등 유익하고도 정말 그럴까 싶은 이야기들이 많다.

3편 '날씨따라 계절따라'에서는 계절에 따른 속담과 생활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다. 비오는 날 출산율이 높은 까닭, 사람의 기분과 날씨와의 관계, 날벼락 이야기 등은 읽으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리고 가을에는 조깅대신 석깅을 하자는 등 날씨와 건강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진다.

4편 '날씨는 환경 지킴이' 편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문제, 엘니뇨나 라니냐 문제, 산성비, 열대야, 오존층 문제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안에서 그는 인간이 스스로 파괴해가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재앙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런 본문 이야기 외에도 각 주제마다 '자투리 토픽'을 실어 날씨에 관한 이런저런 재미난 상식들은 흥미를 더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폭비가 오더라, 헐리우드가 영화의 메카로 탄생한 것은 필름보관이 쉽고 날씨가 온화해 촬영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루 왕조가 멸망한 것은 엘니뇨 때문이었다"는 등 이 책은 기상학이라는 거창한 전문지식 없이도 누구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날씨에 대한 대중교양서로 적합한 책이다.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공기가 없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보기엔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다.

즉 날씨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씨란 잘만 활용하면 살아가는 지혜요, 기업이나 경영자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의 유용한 기법이며, 전쟁에서는 승리를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고 인류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이슈이다"라고.

저자는 날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인이나 국가가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기상학을 공부했고 또 현재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의 기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나로서는 이 책은 반갑기도 하고 또 고맙기까지 하다. 앞으로 사랑하는 후배인 저자가 더 좋은 글을 써 줄 것을 기대해 본다. ⑤7

康仁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